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16, No. 2, 2005

서울지역 아파트의 규모별 실내디자인 리모델링에 대한 심층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Remodeling of Apartments according to the Floor Space in Seoul

신경주* 이지영** 장상옥***
Shin, Kyung-Joo Rhee, Ji-Young Jang, Sang-Oc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for consumer-friendly house plan by investigating remodeling apartments according to the area type and size. In order to achieve this aim, case study was applied.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of five small, medium, and large size apartments through depth-interviews, actual survey, and questionnaires on the remodeling behavior, interior design, and interior atmospher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Structural alterations were frequent in communal area, and then in private and household areas. Changing lighting fixtures was frequent in all area types, and especially, in communal areas installing extra decoration was frequently observed. Besides, alterations of doors and window frames were carried out in communal, private, housework and service areas by using wood, aluminum sashes, double-glazing, and paint coating. Finally, in housework areas the material and color of counters were changed into wooden and achromatic.

Keywords : Apartments according to the size, Interior Remodeling, Case study
주 요 어 : 규모별 아파트, 인테리어리모델링, 심층사례 연구

I. 서 론

우리나라 전체 주택재고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9년 7월 전 재고주택의 50%를 넘어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국민소득의 상승에 동반한 의식수준의 향상과 생활양식의 변화는 전반적인 주거수준을 큰 폭으로 향상시켰다.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에서의 거주 경험 등이 축적되면서 자신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의식과 요구가 다양화, 고급화, 개성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아파트의 평면계획과 설계는 지난 30년간 절대적인 주택부족의 해소를 위해 공급되기 시작했던 형태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보여 획일적이고 개성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그 동안의 주택정책은 근본적인 택지부족, 자원부족, 주택부족이라는 상황에서 고밀도 정책, 분양가 상한 정책등 공급자 위주의 설계 정책이 우선시 되어 주생활의 다양한 변화에의 대응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이 주택의 양적 부족에 대한 해결책이 되었으나 거주자 개개인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야 하는 질적 측면이 향상되지 않아서 입주 전이나 후에 개별 거주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사례가 빈번했다. 이러한 리모델링 행위는 거주자의 다양한 주거욕구의 충족, 이동성의 감소, 거주성과 정착성의 향상이라는 장점과 경제적인 손실, 자원의 낭비 및 건축폐기물 발생 등의 단점이 있어 적정선에서 끝내야 하나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아파트의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막고 사용자 중심적인 평면제공을 위해 깊이 있는 리모델링 연구가 요구된다.

리모델링 관련 선행연구는 대체적으로 리모델링 제도 및 시행과정(이지순 외, 2002; 정성화 외, 2004), 리모델링 의식(강순주, 2002), 리모델링 실태(홍선경 외, 1995; 정지영 외, 1998)에 대한 연구로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지 중심의 양적 연구로 리모델링 실태 및 의식 파악에 그치고 있어 아파트의 실내디자인 계획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의 파악은 미흡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평면 규모별로 실제 관찰을 통한 리모델링 된 공간에의 실내디자인 관점에서 의 분위기 등 세세한 면을 밝힐 심층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가구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내용 및 실내디자인에 대한 심층 사례를 조사하여 앞으로 아파트의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줄이고 사용자 중심적인 평면 계획 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정회원, 한양대 실내환경디자인학과 교수, 학술박사
**정회원, 한양대 대학원 졸업
***정회원, 경상대 가정교육과 조교수, 가정학박사

II. 선행연구 고찰

1. 리모델링의 개념

리모델링이란 용어는 리모델링, 리노베이션, 리폼, 개·보수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살펴본다.

리모델링이 활성화된 미국에서 리모델링은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과 시장을 통칭하며, NAHB(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에서는 이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유럽에서는 'Renovation & Modernization'이라는 용어를, 일본에서는 리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윤영선, 2000).

우리나라에서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또 재고주택의 유지보수 공사와 아울러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한 개량 공사의 의미(건설교통부, 1997)와 건물의 물리적 노후화에 따른 단계 별 유지관리 및 성능향상 활동과 사회변화에 따른 기능적 노후화 극복을 위한 개선활동(대한주택공사, 2000)으로 본다. 이러한 개념을 종합하면 리모델링은 건물의 기능 및 성능을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보수, 수선, 개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유지 또는 개량하거나 불필요한 기능 및 성능의 삭제 또는 새로운 기능 및 성능을 추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리모델링을 적극적인 조절인 구조변경에서부터 가구나 커튼을 이용한 가변적 공간구획과 마감재교체, 즉 도배·페인팅을 포함하는 소극적인 조절과 보수, 수선, 개수,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내용에 따라서는 개조라는 용어도 병용한다.

2. 실내디자인

본 연구에서는 실내디자인을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형태와 붙박이 가구, 설비, 조명, 문, 창호, 마감재의 재료 및 색채 등에 대한 계획과 그 결과로 정의하고, 실내분위기와 실내색채 및 재료를 실내 디자인에 포함시킨 포괄적인 개념으로 본다.

실내분위기 관련 연구에서 박영순 외(1994)는 희망 실내 이미지를 개성적, 현대적, 고전적, 화려한 이미지의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평형이 작을수록 효율적 공간 사용을 위해 실내를 정리정돈하고 유행과 장식에 관심이 많은 반면, 평형이 커질수록 실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황유진(1994)은 실내분위기를 현대적, 고전적 분위기로 나누어 24평 이하 소형 아파트 거주자들은 현대적이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25-33평의 거주자들은 현대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34-49평, 50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 거주자들은 고전적이면서 화려한 분위기의 선호가 높다고 했다. 이윤정(1995)은 실내이미지가 실내 구성요소에 따라 아늑한, 명랑하고 산뜻한, 간결하고 단순한, 위엄 있고 중후한 이미지로 차가 있다고 했다.

실내마감재에서 신영숙(1992)은 실내재료 특성 중 재료, 유형, 색이 앞으로 더 다양화하고 고급화될 것이며 실내 의 배경 색채도 중명도의 연한 색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울, 면, 실크 등 천 소재의 소파가 더욱 선호되고, 석재, 금속 재료에 유리를 끼운 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색채와의 관련에서 강창희(1995)는 아파트 내부 색상은 녹색계열이 가장 높고 이어서 백색계열, 회색 계열, 기타, 적색계열이 많다고 했다. 공간별로는 거실과 식사공간은 주황색, 노란색, 무채색 계통, 입욕공간은 연두색 계통, 현관은 빨간색 계통의 색상이 바람직하며 사적공간은 평수가 클수록 연두색보다는 주황색 계통을, 연령이 높을수록 노란색, 주황색 계통의 사용이 적합하다고 서명석(1991)이 제시했다. 권오정, 전계원(1999)은 주택 바닥재에 대한 연구에서 거주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닥재인 합성수지재는 사용자 만족도와 바닥재 선호도가 낮은 반면, 목재는 사용빈도가 가장 낮으나 '건강에 좋고', '질감이 좋다' 는 이유로 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다고 했다.

III. 연구 방법

조사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소형, 중형, 대형의 아파트 가정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가구 중 자가 소유 가구로 한정하여 각 5사례씩 총 15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1]. 아파트의 규모는 소·중·대형으로서[2] 소형은 분양면적 32평(전용면적 85 m²)이하, 중형은 분양면적 33-50평(전용면적 85 m²-132 m²)미만, 대형은 분양면적 50평(전용면적 132 m²)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아파트의 평면선정은 아파트 백과를 참고로 실 구성 방식이 특이한 평면 형태를 제외하고 본 조사의 연구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평면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대표적인 평면 예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심층 사례조사로 예비조사는 면접과 관찰용지 및 실측용지의 작성 후, 2001년 4월 강남구와 서초구에 위치한 25평, 39평, 56평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심층문항 구성, 배치 상의 문제, 질문의 내용과 이해 정도 등을 검토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1년 5월3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의 일반사항, 리모델링사항, 실사용 특성은 심층면접을 통해 파악하고 상세 리모델링내

1) 자가 소유가구는 임차가구에 비해 주거이동보다 주택개조욕구가 더 강하여 본 연구목적에 적합하다.

2) 주택규모는 한국주택은행의 주택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소형주택을 전용면적 85 m²(25.7평)이하, 중형주택을 85 m²-132 m²(25.7평-40평)미만, 대형주택을 132 m²(40평)이상으로 분류한다(이길순,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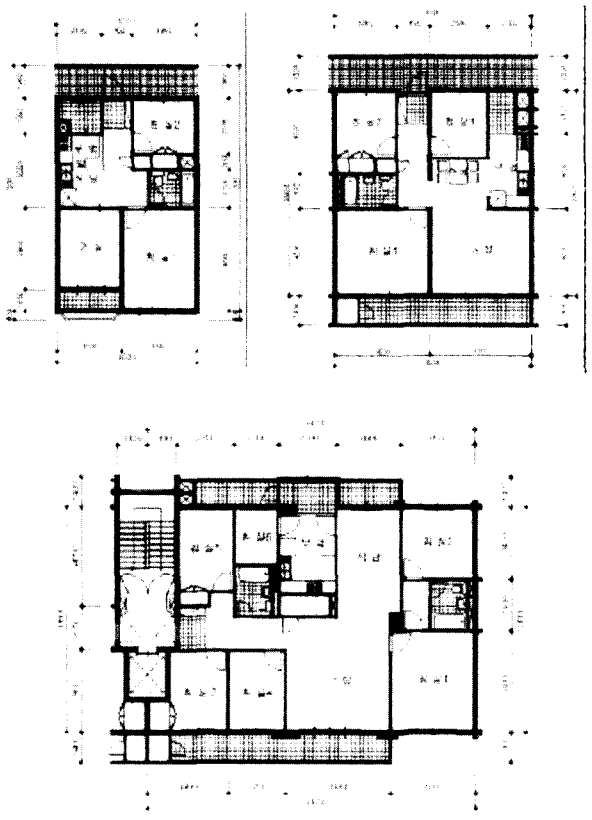

그림 1. 조사 대상 아파트의 평면 예

용과 실내디자인의 파악은 관찰과 실측을 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은 거주자의 일반적 사항과 리모델링 시기, 업체, 비용, 불편사항 및 구체적 리모델링 사항, 추가 리모델링의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은 아파트에서의 거주시간이 가장 길고 실내 디자인에 관심도가 높으며 실질적 의사결정자인 주부를 선정하였다.

관찰·실측치는 아파트 내부공간에서 리모델링을 실시한 부분을 평면도에 표시하고, 이의 내용 및 실내 디자인에 대하여 연구자가 실측과 관찰을 하여 마감재의 재료, 색채, 몰딩, 문과 창호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실내분위기는 이윤정(1995)의 연구를 기초로 간결하고 단순한 분위기,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 명랑하고 산뜻한 분위기, 위엄있고 중후한 분위기, 한국적이며 전통적인 분위기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IV. 리모델링 아파트의 심층 사례 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연령은 남편과 주부 모두 50대가 가장 많았는데, 소형에서는 30대가, 중·대형에서는 50대 비율이 높아 평형이 커질수록 연령이 높았다. 학력은 부부 모두 대졸 및 대학원 졸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남편의 직업은 소형아파트에서는 사무직이, 중형에서는 사무직과 관리직, 대형아파트에서는 전문직의 비율이 높고, 부인은 모두 전업주부이었다. 가족 수는 4인이 46.7%로 가장 많고, 가족생활주기는 소형아파트에서는 초등교육기가 60%, 중형아파트에서는 자녀성년 및 노년기가 80%, 대형아파트에서는 모든 가구가 자녀성년 및 노년기에 해당되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규모의 차이가 있었다. 월평균 소득은 소형아파트에서는 150-200만원 미만이, 중형아파트에서는 350-450만원 미만이 각각 40%로 가장 많고, 대형아파트는 450-550만원미만이 80%로 가장 많이 나타나 평형에 따른 소득 차이가 보였다.

거주기간은 15년 이상이 40%, 5년 미만이 33.3%인데 아파트의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주 예정기간은 전체적으로 2년 미만이 53.3%, 예정 없음이 46.7%로 비슷하며, 소형아파트는 모든 가구에서 2년 미만으로 예정하여 주거이동의 가능성이 높고 대형으로 갈수록 장기간 거주하고 있었다.

2. 조사대상의 리모델링 실태

리모델링 실태는 리모델링의 시기, 업체, 비용, 불편사항, 이유 및 내용분포를 파악하였다.

리모델링 시기는 아파트 구입 후 입주 전이 53.3%로 가장 많고 입주 후 5년 미만이 33.3%, 입주 후 10 이상이 13.3%로 약 87%가 입주 전·후 5년 미만의 시기에 리모델링 하였다. 리모델링 비용은 소형은 500-1,000만원 미만이 80%, 중형은 3,000-4,000만원 미만, 대형은 6,000-7,000만원 미만이 각각 60%로 가장 많아 거주규모가 커질수록 공사에 많은 비용을 썼다. 리모델링 업체의 선정은 아파트 단지 내 인테리어업체 53.3%, 인테리어 전문업체가 46.7%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리모델링 시의 불편사항은 비용문제가 가장 많고, 다음은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시의 짐 보관 문제, 시공업체와의 마찰, 공사기간의 지연문제로 비용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이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공간의 협소, 기존 주택구조, 실 배치와 일상생활의 불일치가 각각 80%로 가장 많고, 아름다운 공간의 연출이 60%, 품질 및 성능 향상이 53.5%, 취향에 맞지 않음,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수납공간의 필요성이 각각 46.7%로 무엇보다 기능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표 1>. 따라서 조사대상 아파트의 리모델링은 아파트 분양 당시의 디자인이 진부하여 현재의 주요구와 괴리가 있어서 최근의 디자인 경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리모델링 내용을 21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한 결과 가구당 평균 14.2가지의 리모델링을 하였는데 소형은 11.2가지, 중형은 13.2가지, 대형은 18.2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표 2>.

모든 조사대상 가구에서 한 리모델링은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제거·교체, 부엌작업대 교체, 문의 설치·제거·변경, 창호의 설치·제거·변경이었다. 80%이상의 리모델링은 문틀의 설치·제거·변경, 문턱의 설치·제거·변경, 창틀/창살의 설치·제거·변경, 창틀/ 문/몰딩의 색

상 변경이었다.

평형별로 보면 소형아파트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제거·교체, 부엌작업대 교체 및 위치변경, 욕실 설비의 설치·제거·교체, 문의 설치·제거·변경, 창호의 설치·제거·변경, 창문틀/문/몰딩의 색 변경이었다. 중형아파트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제거·교체, 부엌작업대 교체 및 위치변경, 욕실설비의 설치·제거·교체, 장식장/수납장/선반/신발장의 설치·제거·변경, 문의 설치·제거·변경, 창호의 설치·제거·변경, 창틀/창살의 설치·제거·변경이었다. 대형아파트에서는 리모델링 내용이 다양하였다.

표 1. 리모델링의 이유 n=15, 중복응답

리모델링 이유	빈도(%)
공간이 좁거나 넓게 사용하기 위하여	12(80)
주택구조, 실 배치가 일상생활에 불편하여	12(80)
자녀성장, 가족수 변화로 공간크기조절 필요	2(13.3)
수납공간이 필요하여	7(46.7)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하기 위하여	9(60)
취향에 맞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7(46.7)
조망이나 외부경치를 감상하기 위하여	5(33.3)
프라이버시 확보, 시각차단을 위하여	0(0)
낡음,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편, 못쓰게 됨	5(33.3)
품질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8(53.3)
주택 유지관리비, 주거·난방비 등 경비 감소위해	1(6.7)
주택매매를 쉽게 하려고	0(0)
먼지 및 소음을 막기 위해	1(6.7)
방범 및 안전을 위하여	2(13.3)

표 2. 아파트 규모별 리모델링내용

개조유형	개조내용	소형	중형	대형	계
구조관련	공간확장	1	2	5	8
	벽체설치 · 제거 · 변경	2	3	5	10
	바닥높이 변경	1	4	5	10
	천장높이 변경	0	1	5	6
	계	4	10	20	34
창호관련	문의 설치·제거·변경(교체)	5	5	5	15
	문틀의 설치·제거·변경(교체)	4	3	5	12
	문턱의 설치·제거·변경(교체)	4	3	5	12
	창호의 설치·제거·변경(교체)	5	5	5	15
	창틀/창살의 설치·제거·변경(교체)	2	5	5	12
	계	20	21	25	66
수납시설	장식장/수납장/선반/신발장의 설치·제거·변경(교체)	4	5	5	14
	부엌작업대 교체·위치 변경	5	5	5	15
	기타 수납시설의 설치·제거·변경(교체)	2	4	3	9
	계	11	14	13	38
기능설비	욕실설비의 설치·제거·변경(교체)	5	5	4	14
	조명의 설치·제거·변경(교체)	5	5	5	15
	난방설비의 설치·제거·변경(교체)	1	1	5	7
	수도설비의 설치·제거·변경(교체)	0	3	5	8
	전기/전화설비의 설치·제거·변경(교체)	0	0	4	4
	계	11	14	23	48
마감재	마감재 교체	5	5	5	15
	창틀/문/몰딩의 색 변경	5	2	5	12
	계	10	7	10	27
합 계		56	66	91	213
사례 당 평균 개조 수		11.2	13.2	18.2	14

3. 공간별 리모델링 및 실내 디자인

1) 공동생활 공간

거실과 식당 모두 마감재 교체와 조명의 설치·제거·교체가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이어서 장식장 및 수납장의 설치·제거·변경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 크기의 확장 공사가 빈번하였다.

(1) 거실

앞 발코니의 확장은 발코니 바닥을 높이고(8사례/15사례 중), 문과 문틀, 문턱, 날개벽을 제거한 경우가 반 정도(7사례)이었다<그림 2>. 이외에 문은 그대로 두고 발코니의 바닥만 높인 경우(1사례), 거실 천장을 높인 경우(6사례)도 있었다. 붙박이 가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식장을 제거한 경우(7사례/10사례 중)와 제거 후 다른 장식장의 설치(3사례)가 있었다. 이 외에 장식장 색의 변경과 수납장 설치도 있었다. 조명은 모두 천장 등과 벽부등을 교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새로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그림 3>. 거실문은 페인트 도장을 주로 하였고, 기존문 제거 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페어글라스, 새시, 목재미닫이문이었다. 거실에 접한 발코니의 창은 갈색 새시나 흰색 페어글라스를 많이 사용하였다. 몰딩은 기존의 것에 페인트 도장 또는 목재 설치가 비슷한데 주로 흰색이 많이 사용되었다. 창호는 커튼이 가장 많고(9사례), 이외는 수직블라인드인데(6사례), 흰색과 아이보리색의 밝은 색이 많았다.

(2) 식당

뒤 발코니와 접하는 식당(5사례)은, 모두 발코니까지 확장하여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이 중 발코니 바닥을 높이고 문과 문틀, 문턱을 제거하여 확장한 경우가 가장 많고(4사례), 이에 더하여 벽체를 아치형으로 만든 경우도(1사례) 있었다. 천장을 높인 경우는 2사례 관

그림 2. 발코니확장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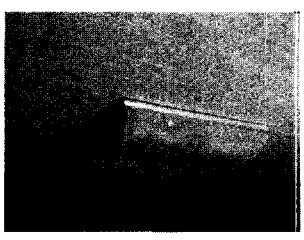

그림 3. 거실 천장등 교체

찰되었다. 붙박이가구는 수납장이 설치된 5가구 모두 이를 제거하였다. 기존 수납장이 없는 가구는 수납장을 설치하는 사례가 많았다. 조명은 모든 사례에서 펜던트로 교체와 스포트라이트를 설치하여 장식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4사례 있었다. 뒤 발코니에 접한 식당(5사례)의 창호는 모두 개조하여 페어글라스를 설치하고 흰색이나 나무무늬의 사용이 많았다. 창호처리는 주로 커튼이나, 수직블라인드이나 수평의 사용도 보이며 이의 색상은 흰색이 보편적이었다.

2) 개인생활 공간

이 공간의 마감재와 조명 교체는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졌다. 이어서 수납장의 설치·제거가 많았다. 또한 침실1, 2는 구조적 개조가 적은 편이나 침실 3-6은 실의 통합을 꾀하는 개조를 하므로 이러한 공간은 실크기의 재조정이 가능하게 가변형으로 계획하여 선택사양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1) 침실 1(가장 큰 방)

침실1의 문은 모두 개조하는데 나무문으로 교체(5사례), 페인트 도장과 손잡이 교체 사례가 9사례로 가장 많았다<그림 4, 5>. 나무문 설치의 경우 흰색과 나무의 중간색을 선호하였으며, 페인트 도장의 경우에는 흰색이 많았다. 또 기존의 문과 문턱, 벽을 제거하고 목재 미닫이문을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1사례). 창도 모두 개조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흰색 페인트로 도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새시나 나무문 설치도 있었다. 몰딩설치(10사례)는 목재와 페인트 도장이 각각 비슷하고 흰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창호처리는 커튼이 주로 사용되며 흰색과 아이보리 색상이 주종을 이루었다.

(2) 침실 2-6

침실2-6까지의 용도는 자녀실, 수납공간, 서재, 드레스룸이다. 특히 대형에서는 침실 5, 6이 수납공간과 손님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침실 2-6까지의 구조 개조는 총 7사례로 침실과 다른 침실간의 벽을 제거하고 넓힌 경우가 3사례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침실 문과 벽을 제거하여 부엌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침실의 두 벽을 제거하여 공간을 반으로 분리한 후 반은 부엌의 붙박이가구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침실의 붙박이 가구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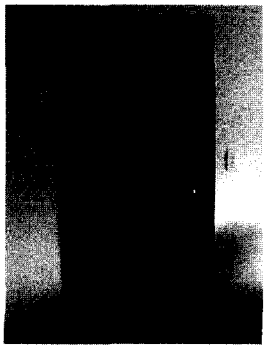

그림 4. 침실 문 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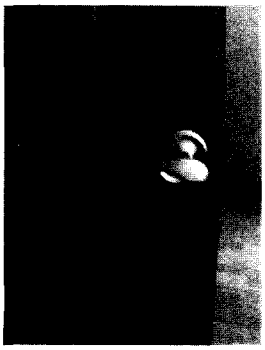

그림 5. 손잡이교체

한 사례도 보였다. 또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고, 창과 창틀, 창턱, 벽을 제거하여 침실을 발코니까지 확장한 경우, 붙박이 가구와 창고를 제거하여 침실을 넓게 쓰는 경우도 보였다. 붙박이 가구는 기존에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페인트 도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7사례), 수납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도(5사례)있고 수납장을 없애거나, 제거 후 책장을 설치한 사례가 각각 1사례씩 있었다.

3) 가사작업 공간

부엌의 경우,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교체, 부엌작업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수납장 설치가 이루어진다. 다용도실에서는 마감재 교체가 보편적이며 이어서 조명교체가 나타나는데 수전의 설치·변경, 수납장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 부엌

부엌은 구조개조에서 다용도실을 연결하여 공간을 확장한 경우(3사례), 부엌과 침실을 통합한 경우(1사례), 부엌을 다용도실로 확장하는 동시에 거실이나 침실과 공간통합을 한 경우(2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용도실 바닥만을 높인 경우, 바닥을 높이고 작업대를 다용도실에 둔 경우, 다용도실 바닥을 높인 후 부엌작업대를 다용도실 쪽으로 변경하고 부엌과 거실 사이의 문과 벽체를 변경한 경우가 각각 1사례씩 있었다. 부엌과 침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하여 공간을 통합시키고 부엌의 작업대위치를 침실위치로 변경하여 향을 다용도실의 발코니 쪽으로 하여 외부조망이 가능하게 하고 부엌과 거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한 경우도(1사례) 있었다. 또 다용도실의 바닥을 높이고 부엌과 거실사이의 벽체의 제거(1사례), 다용도실의 바닥을 높여 부엌작업대를 다용도실로 위치 변경한 후 부엌과 침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하여, 제거된 침실의 반에 수납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반은 침실 수납장으로 사용하며 부엌과 거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변경한 경우도(1사례) 있었다. 붙박이 가구에서 작업대는 모든 아파트에서 교체하는데, 수납장을 없앤 경우는 5사례이었다. 또 세탁기(5사례)와 냉장고(2사례)의 붙박이설치가 있어 부엌에서 세탁하는 경우도 다수 보였다. 부엌작업대는 일자형이 가장 많고(9사례), 색상은 중간색의 목재나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조명은 천장등은 모든 가구에서 교체하여 펜던트를 설치하거나 상부수납장에 매입 등을 설치한 경우(2사례)가 있었다. 기존의 부엌문이 있는 5사례 중 문 제거 후 문을 확장시켜 목재 미닫이문을 설치하거나(2사례), 문과 문틀, 일부 벽체를 제거하여 부엌과 식당이 보이게 한 경우도 있었다. 색상은 문은 주로 흰색을, 몰딩은 목재의 경우는 흰색과 중간색, 페인트도장은 흰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2)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바닥을 높여 부엌으로 사용한 경우를 제외한 9 사례 중 세탁기를 두어 세탁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8사례), 한 집은 냉장고를 두고 있었다. 구조개조는 대부분 다용도실의 바닥을 높여 부엌공간을 확장

시키고(5사례), 수납장을 설치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하는 경우(2사례)와 세탁을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게 수전의 위치를 변경시키거나(4사례) 새로 설치하는 경우(1사례)가 있었다.

4) 생리위생 공간

생리위생공간에서는 욕실은 조명 교체가 가장 많고, 이어서 마감재와 욕실설비 교체이었다. 다음으로 천장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와 욕조의 제거 사례도 있어 다양한 선택사항이 요구되었다.

욕실의 구조변경은 천장을 낮춘 사례가 7사례, 조명은 모든 아파트에서 벽부 등을 교체하였고, 교체와 동시에 천장 등을 신설한 경우(1사례)도 있었다. 욕실에서는 모든 설비를 교체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11사례). 설비의 색상은 대부분 아이보리색과 흰색을 사용하며 자주색을 사용하는 경우도(1사례) 있었다. 세면대와 변기의 교체, 욕조 제거(3사례), 욕실 장의 교체(14사례), 욕실 장의 위치 변경(3사례)이 있는데 이중 욕실 벽에 욕실 장을 매입한 경우도(1사례) 있었다<그림 6>. 이외에 거울의 교체(14사례), 샤워커튼의 설치(3사례)가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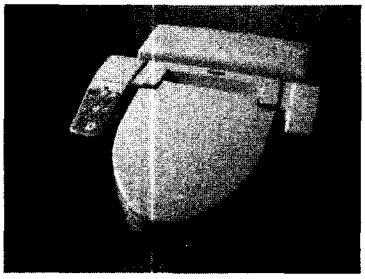

그림 6. 변기교체 예

5) 서비스 공간

서비스 공간에서는 현관은 마감재, 조명, 신발장의 교체가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졌고 오직 1가구에서만 중문설치와 천장의 높이 변경이 나타났다. 앞 발코니는 창 설치와 마감재 교체가 가장 많고, 이어서 조명교체, 문과 수납장의 설치가 많으며, 뒤 발코니에서는 창 설치와 마감재 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마감재, 조명 교체와 창의 설치가 주류를 이루었다.

(1) 현관

천장을 높이거나 중문을 설치한 경우(각각 1사례), 현관문에 나무무늬 시트를 붙인 경우(2사례)가 있었다. 신발장의 교체가 가장 많았고(11사례), 페인트 도장도 보였다(4사례). 조명은 기존의 천장 등(10사례), 벽부 등(5사례)을 모두 교체하였다. 벽의 한 면에 전면 거울을 설치하여 현관공간이 넓게 보이도록 한 경우(2사례)도 있었다.

(2) 발코니

앞 발코니의 구조개조는 다른 실의 확장에 주로 사용하여 앞 발코니의 나머지 부분의 경계에 문을 설치하거나(6사례), 수납장을 설치한 경우(5사례)와 창고를 제거한 경우(1사례)도 보인다. 뒤 발코니는 대형아파트에서만 있었는데 실크기 확장이나, 새시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화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공동생활공간에서는 거실과 식당 모두 마감재 교체와 조명의 설치·제거·교체가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지며, 이어서 장식장 및 수납장의 설치·제거·변경, 발코니를 이용한 공간 확장을 꾀하는 사례가 많았다. 개인생활공간에서는 마감재와 조명 교체, 수납장의 설치·제거도 많이 나타났다. 가사작업 공간에서는 마감재와 부엌작업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다. 욕실에서는 조명, 마감재, 욕실설비의 순으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비스 공간은 마감재, 조명 교체와 창의 설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4. 아파트규모별 리모델링 및 실내디자인

1) 공동생활 공간

거실의 리모델링을 규모별로 보면 소형아파트에서는 마감재, 조명 교체, 공간 연결이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지고, 중형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교체가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졌고, 이어서 장식장의 제거·변경, 실크기 확장, 발코니 바닥높이 변경으로 나타났다. 대형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교체, 천장높이 변경이 모든 가구에서 나타났고, 실크기 확장, 발코니의 바닥높이 변경, 문, 문틀, 문턱, 벽체 제거, 장식장의 설치·제거·변경이 뒤따랐다. 모든 평형 규모에서 마감재와 조명의 교체가 이루어지며, 중·대형 아파트는 소형보다 실크기 확장과 발코니의 바닥높이 변경이 많았다. 대형아파트에서는 다양한 개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식당은 소형아파트에서는 마감재, 조명교체, 수납장 제거가 모든 가구에서, 중형에서는 마감재와 조명의 교체에 이어서 수납장설치를 했다. 대형아파트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설치·교체, 실크기 확장, 발코니의 바닥높이 변경, 문, 문틀, 문턱의 제거가 모두 이루어졌고, 이어서 수납장 설치와 천장의 높이 변경으로 나타났다. 모든 규모에서 마감재와 조명의 교체가 있었다. 소형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수납장의 제거가 많으나 중·대형에서는 새 수납장의 설치가 많았다.

거실은 발코니까지 확장을 원하나 실제 확장 사례는 대형(4사례), 중형(3사례), 소형(1사례)의 순으로 규모가 큰 경우이었다. 소형아파트 거주자는 거실 확장을 선호하나 리모델링 비용의 경제적 부담, 공간협소로 확장효과 미약, 확장 가능한 공간 불충분 등의 이유로 실제 리모델링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천장 높임은 대형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중형에서는 1사례, 소형에서는 없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규모는 가정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므로 큰 규모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하여 거주자의 개성을 표출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조명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천장 등을 교체하는데 대형에서는 천장 등 교체와 동시에 장식 등도 바꾸어 거주자의 개성을 표출하

였다. 바닥재는 대형아파트는 목재를, 소·중형에서는 우드륨을 많이 사용하여 전반적으로 자연소재를 선호하나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인공소재로의 대체가 보였다. 몰딩은 대형에서는 목재 사용이 빈번하나, 중형은 목재나 페인트 도장을, 소형은 페인트 도장이 많아 차이가 있었다. 창호처리는 소형에서는 흰색, 아이보리, 연분홍, 옥색을, 중형에서는 아이보리, 옥색, 대형에서는 흰색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규모별 색채 선호 경향의 차이는 평형별로 거주자의 연령과 가족생활주기가 달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식당의 바닥재도 아파트 규모에 따라 거실과 유사한 경향인데 이는 실내에 통일감을 주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내기 위하여 동일 재료로 구성하기 때문이었다. 몰딩은 대형은 목재 사용이 빈번하고, 중형은 목재나 페인트 도장, 소형은 페인트 도장을 하였다

2) 개인 생활공간

침실 1은 모든 규모에서 마감재, 조명 교체가 이루어지고 중·대형 아파트가 소형에 비하여 수납장 설치가 많았다. 따라서 마감재와 조명기구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하나 수납장 설치는 평형 별 선택사양이 바람직하다. 침실 2도 침실 1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침실1은 바닥재의 경우 소형아파트는 모노륨(3사례), 한지장판과 우드륨이 각각 1사례씩 관찰되었다. 중형에서는 우드륨과 리노륨이 각각 2사례이고, 모노륨은 1사례로 소형보다는 적었다. 대형에서는 한지장판(3사례)과 리노륨(2사례)으로 구성되었다. 결과적으로 대형에서는 한지장판이 가장 많았다. 창호의 경우 대형은 새시를 새로 설치하나 소·중형에서는 교체보다 페인트 도장으로 비용을 줄이고 있고, 창호 처리는 소형아파트는 흰색, 아이보리, 분홍색을, 중·대형아파트는 흰색, 아이보리색을 많이 사용했다.

침실2에서 붙박이 가구는 중형아파트에서는 제거하나 대형에서는 설치하는데, 전자는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싶고, 후자는 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소형에서는 붙박이 가구를 제거하지 않는데, 이는 수납공간 부족 때문으로 보였다. 바닥재는 대형아파트는 나무(4사례), 한지장판(1사례), 중형에서는 우드륨(2사례), 나무, 리노륨, 모노륨(각각 1사례씩)으로 나타났다. 소형은 모노륨(3사례)과 우드륨(2사례)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대형에서는 자연소재를 많이 사용하나 소·중형에서는 주로 인공소재이었다. 문과 창호의 경우 대형은 교체가 많으나, 소·중형에서는 이보다 페인트 도장이 많은데 경제적 부담과의 관련으로 보였다. 창호 처리는 소형은 흰색, 아이보리, 연하늘색을 사용하고, 중형은 흰색, 아이보리, 옥색, 대형에서는 흰색, 아이보리색을 사용하여 대형 거주자들은 무채색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침실3-6에서는 붙박이 가구는 대형에서는 4사례(5사례 중)가 붙박이가구를 새로 설치하나 중형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침실 3의 공간 협소로 인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붙박이 가구 설치는 방의 규모에 따른 선택사양이 필요하다. 바닥재는 대형에서는 나무을, 중형에서는 우드륨, 리노륨을 사용하여 다른 침실과 비슷한 추세이었다. 창호 처리는 흰색, 아이보리, 옥색을, 대형에서는 흰색, 아이보리, 베이지, 하늘색, 옥색을 사용하여 침실 1, 2와는 달리 다양한 색을 사용했다.

3) 가사작업 공간

부엌은 모든 규모에서 마감재, 조명, 부엌작업대의 교체, 중·대형에서는 수납장 설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대형에서는 실크기 확장, 다용도실의 바닥높이 변경 등 다양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거실, 식당, 침실과 마찬가지로 마감재와 조명기구의 선택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부엌작업대 또한 다양한 재료와 색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되어야 한다. 다용도실은 모든 가구에서 마감재 교체가, 소형에서는 수납장을 추가로 설치한 경우(2사례)가 있고, 중·대형에서는 모두 조명교체를, 이어서 수전의 설치·변경(5사례)이 나타났다.

부엌의 구조개조는 대형아파트의 경우 다용도실을 연결하여 공간을 확장하는 경우(3사례), 부엌과 침실을 통합하는 경우(1사례), 부엌을 다용도실로 공간 확장하는 동시에 침실과의 통합을 하는 경우(1사례) 등 다양했다. 구체적으로 다용도실 바닥만을 높이는 경우, 다용도실 바닥을 높이고 부엌작업대의 위치를 다용도실로 변경한 경우, 다용도실 바닥을 높이고 부엌작업대를 다용도실 쪽으로 변경한 후 부엌과 거실 사이의 문과 벽체를 변경한 경우가 각각 1사례씩 관찰됐다. 또 부엌과 침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하여 한 공간으로 통합한 후 부엌작업대의 위치를 침실이 있던 자리로 변경하는데 향을 다용도실과 발코니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하고 부엌과 거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한 경우가 1사례 있고, 다용도실의 바닥을 높여 부엌작업대를 다용도실로 위치 변경하고 부엌과 침실사이의 문과 벽체를 제거한 후 침실 공간의 반 정도에 부엌 수납장을 설치하고 나머지 침실 공간은 다른 침실과 통합하여 수납장을 설치하며 부엌과 거실사시의 문과 벽체를 변경한 경우가 1사례 보였다. 결과적으로 부엌의 향을 기존과 반대로 외부 조망이 가능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엌의 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부엌 창의 위치, 배치 등). 중형아파트에서는 다용도실의 바닥을 높여 부엌을 확장함과 동시에 거실과 부엌 사이 벽체를 제거한 경우(1사례)가 있었다. 소형에서는 실크기 확장보다 거실과 부엌사이의 문, 문틀, 문턱을 제거한 경우(4사례)가 있고 문을 제거한 경우가 1사례로 나타나 협소한 공간을 공간 통합으로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다. 부엌작업대는 모든 규모에서 교체하는데 소형에서는 무채색 계열의 색을, 중형에서는 목재를(4사례), 흰색(1사례), 대형에서는 모두 목재로 나타나 주거규모에 따른 소재 차이가 있었다. 바닥재는 대형에서는 목재를, 소·중형에서는 우드륨을 많이 사용하였다.

다용도실에서는 중형에서는 바닥을 높여 냉장고를 놓은 경우(1사례), 기존 바닥을 그대로 두고 냉장고를 놓은 경우(1사례)가 보였다. 대형에서는 바닥을 높인 경우가 4

사례였고, 부엌으로 다용도실을 확장하였다.

4) 생리위생 공간

욕실에서는 모든 규모에서 마감재, 조명, 욕실 설비 교체가 가장 많고 중·대형에서는 천장 높이의 변경(각각 3, 4 사례)도 이루어졌다.

중·대형아파트는 천장 높이를 낮추는 사례가 많았다. 욕실설비는 모든 규모의 대부분이 세면대, 변기, 욕조를 교체하고, 이 중 욕조제거는 소형 1사례, 중형 2사례, 대형 1사례이고 중·대형에서는 샤워커튼 설치가 보였다. 특히 중형의 경우 욕조제거 후 재설치를 희망하였다. 욕실 설비의 색상은 대부분 흰색, 아이보리색을, 소형에서는 자주색(1사례)도 보였다.

5) 서비스 공간

현관은 모든 가구에서 마감재, 조명, 신발장 교체가 이루어졌고, 대형아파트에서는 중문의 설치, 천장 높이 변경이 있었다.

앞 발코니에서는 모든 규모에서 창 설치와 마감재 교체가 가장 많고, 중·대형에서는 조명교체와 문의 설치가, 소·중형에서는 수납장 설치가 많았다. 뒤 발코니는 대형에만 있는데, 실크기 확장에 사용되거나 새시를 설치하여 내부에 편입하는 리모델링이 많았다. 현관은 신발장은 소·중형은 페인트 도장이 빈번하고, 대형은 모두 교체하였다. 현관 조명은 모든 아파트에서 교체하고, 대형(1사례)에서는 천장높이를 높였다. 바닥재는 소·중형은 타일을, 대형은 대부분 대리석마감을 하였다. 앞 발코니의 수납장 설치 경우는 소형(2사례), 중형(3사례)에서 관찰되어 수납공간 부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형에서는 실크기 확장에 사용하였다. 뒤 발코니는 대형에만 설치되어 있어 실크기 확장에 사용하거나 새시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으로 사용하였다.

5. 실내 분위기

1) 실내 재료와 색채

(1) 공동생활 공간

거실과 식당의 마감재는 모든 가구에서 교체하였다. 천장과 벽은 모두 실크벽지로, 아이보리색이 가장 많고 이어서 연분홍색이었다. 바닥재는 우드륨이 가장 많고, 목재(6사례)도 보이며, 몰딩은 목재나 페인트 도장의 경우가 비슷하였다<그림 7>. 바닥재는 우드륨과 목재의 중간색이, 몰딩은 대부분 흰색을 사용하였다. 창호 처리는 커튼(9사례)과 수직블라인드(6사례)로 흰색과 아이보리색이 가장 많았다<표 3>.

(2) 개인 생활공간

침실1의 천장과 벽은 모두 실크벽지로 색상은 아이보리색이 가장 많고(6사례) 이어서 연 노란색 이었다. 바닥재는 한지장판, 리노륨, 모노륨이 각각 4사례이며 우드륨은 3사례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된다. 리노륨은 황토색을, 우드륨은 중간색을, 모노륨은 한지 장판색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몰딩은 설치 비율이 낮은데 설치할 경우는 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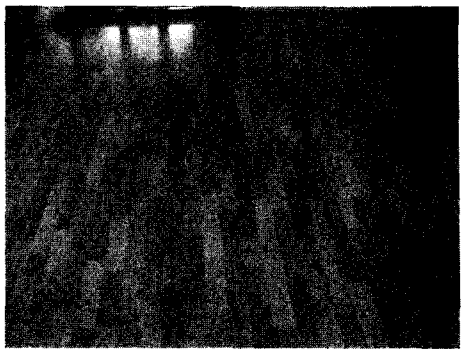

그림 7. 거실바닥재(우드플로링) 교체

표 3. 거실과 식당의 마감재 ( )사례 수

항목	재료	색상
천장마감재 n=15	실크벽지(15)	흰색(1) 아이보리(8) 연분홍(3) 연하늘(2) 흰색+연분홍·연하늘(1)
벽마감재 n=15	실크벽지(15)	흰색(1) 아이보리(8) 연분홍(3) 연하늘(2) 흰색+연분홍·연하늘(1)
바닥마감재 n=15	우드플로링(6) 우드륨(8) 모노륨(1)	밝은색(2) 중간색(4) 밝은색(1) 중간색(7) 한지장판색(1)

나 페인트 도장이 많고 흰색이 보편적이었다. 창호 처리는 흰색과 아이보리색의 선호가 높았다. 거실과 식당의 천장과 벽의 마감재는 무채색 계열이나, 침실1의 천장과 벽의 마감재는 연 노란색과 연분홍색의 사용이 많아 침실의 분위기를 차별화하고자 했다. 바닥재는 한지장판 색상이 가장 많은데 안방개념이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창호 처리는 거실보다 커튼사용이 많았다<표 4>.

침실2의 천장과 벽의 마감재 색상은 아이보리와 연노랑색이 가장 많았다(각 4사례). 바닥재는 목재, 우드륨, 모노륨이 각각 4사례, 목재와 우드륨의 경우 중간색이 많으며, 모노륨은 한지 장판색을 많이 사용하였다. 몰딩은 침실1과 비슷한 경향이며 주로 흰색을 사용했다. 창호 처리는 커튼이 가장 많고(10사례), 이어서 쉐이드(2사례), 수평블라인드(1사례)가 사용되었다. 색상은 흰색, 아이보리가 주도적이며 연하늘색, 옥색의 경우도 있었다. 침실1보다 무채색 사용이 적은데 다양한 색의 사용과 더불어 띠벽지 사용이 많았다. 또한 한지장판 사용이 적은데 이는 자녀용 침실 때문으로 보였다.

(3) 가사작업 공간

부엌의 천장마감재는 실크벽지가 가장 많으며 플라스틱 패널(1사례)의 사용도 보였다. 색상은 아이보리색이 가장 많았다. 벽 마감재는 실크벽지와 타일을 같이 사용하고, 색상은 벽지는 아이보리색, 타일은 흰색이 가장 많

표 4. 침실 1의 마감재 ( )사례 수

항목	재료	색상
천장마감재 n=15	실크벽지(15)	흰색(2) 아이보리(6) 연노랑(4) 연분홍(1) 옥색(1) 흰색+연분홍(1)
벽마감재 n=15	실크벽지(15)	흰색(1) 흰색+띠벽지+하늘색(1) 아이보리(6) 연노랑(4) 연분홍(1) 옥색(1) 흰색+연분홍(1)
바닥마감재 n=15	리노륨 한지장판(4) 우드륨(3) 모노륨(4)	(4)황토색(2) 연주황(1) 한지 장판색(1) 밝은색(1) 중간색(2) 한지 장판색(3) 하늘색(1)

았다. 바닥재는 우드륨(8사례), 목재(5사례)이며 중간색이 많은 편이었다. 천장과 벽 마감재는 대부분이 무채색을, 바닥재는 거실과 식당의 경우와 비슷한 마감재를 사용했다. 작업대의 색상은 중간색의 목재와 흰색 사용이 비슷했다. 따라서 부엌작업대도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4) 생리위생 공간

욕실의 천장은 대부분 플라스틱 패널을 사용하며(13사례), 목재패널인 경우도(1사례) 있는데 아이보리색이 가장 선호되며 이어서 흰색과 연하늘색이었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모두 타일마감이며, 벽의 타일 색상은 아이보리색, 연 노란색, 연분홍색, 연하늘색이 각각 2사례이며, 바닥 타일 색상은 연갈색(3사례), 청회색, 청색의 사용이 그 다음으로 이었다. 천장과 벽, 바닥 마감재 색상은 다른 실에 비하여 다양한데 천장과 벽은 밝은 색이 지배적인 반면 바닥은 어두운 색이 사용됐다. 설비의 색상 또한 아이보리색과 흰색이 주로 사용되며, 자주색(1사례)도 있었다.

(5) 서비스 공간

현관의 천장 마감재는 실크벽지로 현관과 비슷한데 아이보리색과 연분홍색이 많고, 페인트 도장(1사례)도 있었다. 벽 마감재의 경우 아이보리색의 실크벽지가 대부분이며 전면거울을 설치한 경우(2사례)도 보였다. 바닥재는 타일(11사례)과 대리석(4사례)이며 색상은 모두 갈색이 많았다.

2)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

아파트 리모델링 후 느껴지는 실내분위기를 마감재의 재료, 색 등으로 판단하여 5가지로 분류하였다<표 5>. 전반적으로 간결하고 단순한 분위기(11사례)가 가장 많고, 이외는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3사례)와 명랑하고 산뜻한 분위기(1사례)이었다. 위엄 있고 중후한 분위기나 한국적이며 전통적인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실내 분위기 경향은 현재 유행하는 실내디자인을 반영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아파트의 실내디자인 계획이 필요하다.

표 5. 실내분위기

실내 분위기	빈 도
간결하고 단순한 분위기	11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	3
명랑하고 산뜻한 분위기	1
위엄있고 중후한 분위기	0
한국적이며 전통적인 분위기	0
계	1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파트의 규모별 리모델링내용 및 실내디자인을 분석하여 앞으로 제공될 아파트 평면 계획 시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리모델링실태를 보면 리모델링은 아파트 구입 후 입주 전 또는 입주 후-5년 미만 시기에 이루어지며, 리모델링비용은 주로 소형아파트는 500-1,000만원 미만, 중형은 3,000-4,000만원 미만, 대형은 6,000-7,000만원 미만으로 거주 규모에 따라 공사비용가 달랐다. 리모델링 업체의 선정은 아파트 단지 내 인테리어 업체와 인테리어 전문업체의 비율이 비슷하며, 리모델링 시 불편 점은 비용문제, 리모델링 기간 중 짐 보관 문제, 시공업체와의 마찰, 공사기간 지연 등이었다.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려는 아파트 가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리모델링 내용은 가구당 평균 14.2가지인데, 소형은 11.2가지, 중형은 13.2가지, 대형은 18.2가지로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리모델링이 이루어졌다. 리모델링의 이유는 공간의 협소, 기존의 주택구조, 실 배치와 일상생활의 불일치로 발생했다. 조사대상의 모든 가구에서 이루어진 리모델링은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제거·교체, 부엌작업대 교체, 문의 설치·제거·변경(교체), 창호의 설치·제거·변경(교체)이었다. 80%이상 리모델링된 부분은 문틀의 설치·제거·변경, 문턱의 설치·제거·변경, 창틀/창살의 설치·제거·변경, 창틀/문/몰딩의 색 변경이었다.

셋째, 공간별 리모델링은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마감재 교체, 조명의 설치·제거·변경(교체), 발코니를 이용한 공간 확장이, 개인생활 공간에서는 마감재와 조명 교체를 포함한 수납장의 설치·제거가 많았다. 가사작업 공간에서는 마감재와 부엌작업대 교체가 많고, 생리위생공간에서는 조명, 마감재, 욕실설비의 순으로 교체가 많이 된다. 서비스공간에서는 마감재, 조명의 교체와 창의 설치가 많았다. 공간별 실내디자인은 구조적 리모델링은 공동생활공간에 이어서 개인생활 공간, 가사작업 공간이었

다. 붙박이가구는 공동생활 공간, 개인생활 공간, 가사작업 공간에서 색의 변경이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조명은 공공생활 공간에서 교체나 추가적인 장식 등의 설치 사례가 있으며 개인생활 공간, 가사작업 공간, 생리위생 공간도 조명의 교체가 있었다. 문과 창호의 개조에서 생리위생 공간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목재 설치, 새시 설치, 페어글라스 설치, 페인트 도장 등이 이루어지며 가사작업 공간의 부엌작업대는 목재나 무채색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공간의 기능에 따라 리모델링 내용이 달라지므로 공간별 선택사양이 차별화되어야 한다.

넷째, 평형규모별 리모델링을 보면 거실에서는 모든 평형에서 마감재와 조명의 교체가, 중·대형에서는 소형에 비하여 실크기 확장과 발코니의 바닥높이 변경이 많이 나타났다. 또 대형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양한 리모델링이 많이 이루어졌다. 식당에서는 모든 평형에서 마감재와 조명 교체가, 소형에서는 기존 설치된 수납장의 제거가 많고, 중·대형에서는 새 수납장의 설치가 많았다. 평형규모별 실내디자인은 구조개조는 소형아파트에서는 공간 확장 의견은 많으나 실제공사는 대형아파트와 중형아파트에서 있었다. 마감재는 대형에서는 대부분 목재를, 소·중형에서는 우드륨으로 자연소재의 느낌이 나는 인공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창호는 대형에서는 새시로, 소·중형에서는 페인트 도장을 하였다. 조명은 대형에서는 장식등을 설치하였다. 부엌작업대는 모든 가구에서 교체가 이루어졌다. 붙박이 가구는 중·대형에서, 수납시설의 경우 소·중형에서 대형보다 많이 설치됐다. 색채 사용은 대형에서는 무채색 계열인 흰색, 아이보리 색이 많이 사용되나, 중형에서는 흰색, 아이보리, 옥색을 사용하고, 소형에서는 흰색, 아이보리, 연분홍, 옥색, 연하늘색 등을 사용하여 소형아파트일수록 다양한 색상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평형규모별로 리모델링의 내용, 마감재 종류, 색 등이 차이가 나므로 분양 시는 평면규모를 반영한 실내디자인 계획과 선택사양이 요구된다.

다섯째, 리모델링된 아파트의 벽과 천장 마감재 종류 및 색 등으로 본 실내분위기는 간결하고 단순한 분위기가 가장 많고(70% 이상), 이외는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 명랑하고 산뜻한 분위기가 보이는데, 위엄 있고 중후한 분위기나 한국적이며 전통적인 분위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실내분위기는 현재 유행하는 추세를 반영한다고 판단되므로 아파트 분양자 측에서는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및 실내분위기의 유행경향을 예측하여 공급하면 불필요한 리모델링을 줄일 수 있겠다.

위의 연구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 평형내의 선택 가능한 평면 유형을 다양하게 제공하거나 평면형태만을 선택시키고 분양당첨자를 설계과정에 참여시켜 자신의 주거를 자신에 맞게 계획하게 도운 후 결정하게 하고, 거주 후 가구특성에 적합하도록 내부공간의 변경이 되는 적응적 성장(adaptive growth)이 가능한 가변형 주거로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부엌작업대, 붙박이 가구 및 욕실설비, 벽지, 바닥재, 조명기구, 문, 창호 등에 대해서는 거주자의 취향과 경제적인 요건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는 범위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 내장재 선택 폭을 효율적으로 넓히는 방안, 마이너스 옵션제의 실시, 분양 후 입주 시점에서의 마감재 선택방안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평형별 변인을 통해 리모델링 내용 및 실내디자인을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 내용은 거주가구의 특성과 주거특성, 평면형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므로 앞으로는 거주가구의 특성과 주거특성, 평면 형태를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 요망된다.

참 고 문 헌

1. 강순주(2002), 고층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 및 요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9), pp.131-138
2. 김남효(2003), 주방의 리모델링 선호요인 및 실태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8호, pp.249-256
3. 김영애 · 이진원(2003), 노후 아파트 단위 주호의 재적응 실태 조사-공간구조개조행위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 획계, 19(2), pp.76-74.
4. 선송희 · 박용환(2003), 집합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가족형태 별 주요구의 파악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노후아파트의 주 생활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4(2), pp.41-50
5. 신교영 · 이정수 · 송용호(2003), 지방도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대전광역시 S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국주거학 회논문집, 14(5), pp.129-140
6. 오인욱 · 조명은(2003), 거주자들의 참여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39호, pp.62-71
7. 이은희 · 정무웅(2003), 공동주택의 성능개선 요구 및 실태에 관한 연구-단위주호의 리모델링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9(9), pp.41-48
8. 이지순 · 배정민 · 윤정숙(2002),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시행 프로 세스에 관한 사례 연구-부분 리모델링 시행사례를 중심으로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8(3), pp.29-36
9. 이지순 · 윤정숙(2002),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거주자의 의식과 요구, 한국주거학회지, 13(2), pp.79-86
10. 이향미 · 이청웅(2002), 아파트 리모델링 후 거주환경에 관한 연구-거주자의 주생활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16(6), pp. 133-140
11. 정성화 · 이원영 · 강순주(2004), 아파트 리모델링 시행에 대한 거주자 의식과 리모델링 사례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15(4), pp.117-125
12. 정지영 · 김로사(1998), 아파트먼트의 거주자 특성에 따른 개 조행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4(7), pp. 31-41
13. 주서령 · 이미정(2001), 노후 고층아파트의 유지관리 및 개선 실태 조사, 한국주거학회지, 12(3), pp.75-83
14. 홍선경 · 윤복자(1995),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개조특성 분석모 형,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1(11), pp.3-14

(接受: 2004. 9. 1)